

# 말레 팔라, 말레이시아에 취하다.

10월편\_10이네, 이제 달려볼까?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바  
쿠  
테

30.55

스  
윳  
p  
o  
r  
k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 1. 10월 영업 일정

- 1)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 2)영업시간\_생활 일과표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페이지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 2) 우정을 위하여\_ 베다니 홈페이지와 함께한 행사
  - (1) special carival
  - (2) Bethany thanks giving
  - (3) 디파라야 파티
- 3) 내일을 위하여
  - (1) END POVERTY campaign
  - (2) 디파발리 open house 초대

## 4. 3차는 어디? \_ 10월 목표 돌아보기 \_ 11월 목표

# 1.10월 영업 일정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봄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 1)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 Thanks giving day 연습   ← 안도켄스 연습   ← 말레이댄스 연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	
3	4	5	6	7	8	9
← 관찰기간			← 베다니 활동(스케줄)			
10	11	12	13	14	15	16
←					Thanks giving party!!	
17	18	19	20	21	22	23
←		End poverty 캠페인!!		←		Deepa raya party!!
24	25	26	27	28	29	30
←		디파발리 - open house 방문		← 휴무		
31						

# 1.10월 영업 일정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프막  
6.00

원판미  
7.80

## 2) 영업시간\_생활 일과표

오전 7:30	베다니 홈으로 출발
8:00	아침 조회
8:30	아침 운동
9:00	스케줄
10:00~10:30	쉬는 시간
오후 12:00	점심 시간
1:00~3:00	스케줄
3:00~6:00	말레이-인도 댄스 연습, 각종 교류-여가 시간
7:00~9:00	일일 평가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

나시고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의 이미지를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하여 최종 단어가 이름이 되는 "인디언식 이름짓기"를 통해 서로의 별명을 만들었다. 왜 서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대며 밤을 지냈다.

Satu Princess



사뚜(1) 말레이시아의 타이틀 못지 않는. 한국 칠공주계의 사뚜!



마음만이 아닌 얼굴까지도. 소년이길 바라며. 얼굴모양도 heart.

Heart Face

10월의 말레팔라



Dynamic Bird

Bird 인 이유는 비밀. 풍부한 표정, 놀라운 친화력 어찌 역동적인 날개짓이 아닌 말인가?



Smile swamp

말레이에서 그의 웃음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나갈 수 없는 늪?과도 같다...나?



Lonely Lovely girl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러나 그녀의 오로라는 강했다... 듣고 있지?

<함께 인디언 이름 짓기에 동참.>

Masumi



Winky Jump

그녀 하면 떠오르는 것! 힘이 넘치는 아침 운동과 짱긋 하는 귀여운 표정~ 윙크~~~~~ 점프!!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는 베다니에 있다.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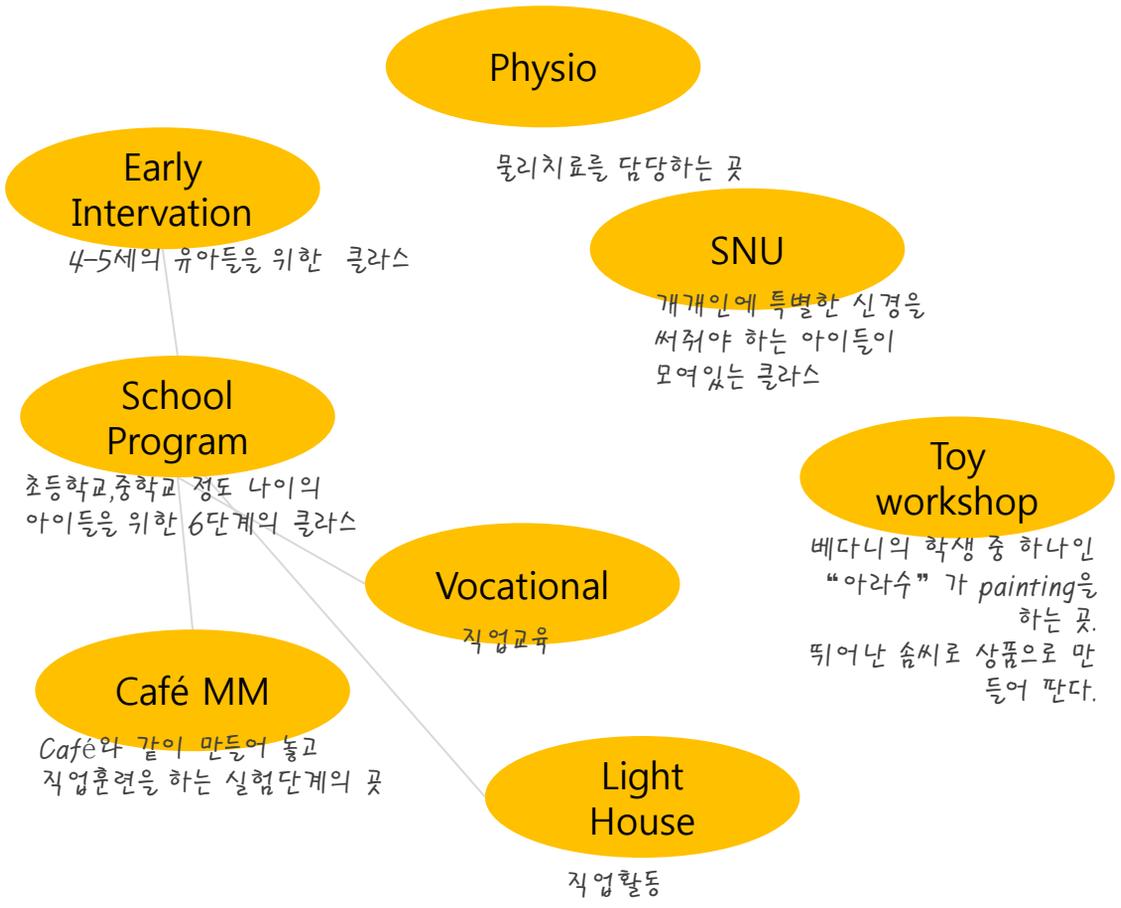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 BETHANY HOME

베다니홈은 말레이시아 페락주에 위치한 special children 교육 기관으로, 4-5세의 유아들을 위한 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부터 lv1에서 lv6까지의 school program, 직업교육을 하는 vocational 프로그램, 직업 활동을 하는 light house 까지 15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선생님, 스태프 그리고 여러 나라의 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 아동들은 이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 라온아띠 또한 이 곳에서 두 달 가량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BETHANY HOME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_베다니 선생님

나 시 코 랭	로 티 롬	바 쿠 테	스 윗 포 르 크	나 시 르 막	원 란 미
5.50	1.20	30.5	20.0	6.00	7.80

## OFFICE



**Jayasing**

베다니의 교장. 키 큰 인도 엘리트 할아버지. 은지가 병상에서 번쩍 일어나게 해주는 능력의 소유자.

베다니의 엄마. 온화하고 자상함. 왠지 모르게 예쁨. 나이트inggail 느낌. 박범진 이상형. 베다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마운 할머니. 우리의 베다니 이모.



**Sumathi**

Café mmm 을 담당하는 선생님. 우리가 리마오 아이스를 부탁하거나 수업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언제나 활짝 웃으며 CAN CAN CAN ☺



**Shiba**

어린 아이들을 위한 Early intervation클래스 및 senior 선생님. 디파라야 때 집에 초대하여 최고 맛있는 로띠 차나이 맛을 선보여 주셨다.



**Philomina**

승현의 파트너. 디파라야 축제 때 봉사자들의 단장을 도와주는 솜씨 발휘. 매직을 한 헤어 스타일의 선두주자

## Physio



**Mr.Moe**

미얀마에서 온 physio 총괄 아저씨. 외모와 다른 얇은 목소리. 기타도 잘 치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함. 베다니의 사진 작가.

## 식당

**Kiran**



뽀글뽀글 머리. 서양 여자봉사자들을 좋아함. 수줍은 장난꾸러기 파란 렌즈의 눈동자. 베다니 다음 후계자의 형의 아들. 현재 베다니에서 거주 중.

**Ruth**



우리에게 직접 일을 시키는 행동대장 아주머니.

**seetha**



초 절정 시크. 사리입고 변신. 빠른 손놀림과 엄청난 칼질! 그러나 음식 간이 조금 아쉬움.



**Buspam**



**Uma**

친절한 미소. 아라수의 선생님.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_베다니 선생님

나 시 코 랭	로 티 롬	바 쿠 테	스 트 포 르 크	나 시 르 락	원 란 미
5.50	1.20	30.5	20.0	6.00	7.80

VOCATIONAL CLASS



Iv1 Selvarani

언제나 화려함. 디파발리 때 집에 초대해 줌. 수업에 들어가면 적극 협조. 교육 도구 욕심. 남편의 적극적 외조.

Iv1\_2 Shiyamla

길고 수수함. Iv1의 보조교사로 일함.



joy Bunnisa



24살 숙정이 말레이 댄스 파트너. 작고 아담함. 정중한 인사. 곧 싱가포르에 있는 장애인 학교로 옮겨감.



Iv2 Ambiga

아이들을 절대 컨트롤 하는 카리스마. 나도 무서워 못 들어 가겠음. 웃으면 나를 귀여움. 알고 보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추측 수박화채를 좋아함. 앞으로 친해지자.

SCHOOL PROGRAM



peace Nivita

19살 선생님. 승현과 소개팅 주선 예정.

Iv3a Rebheca

장난꾸러기. 승부욕이 넘치는 반칙왕.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다 좋다고 함. 뭐든지 아끼는 것이 생활화.



Iv3b Anitha



인도 춤을 알려준 선생님. 붓 같은 머리 스타일. 특히나 스페셜한 아이들을 담당하느라 매일 고생. 언니의 약혼식에 우리를 초대해 줌.

엄청 포근함. 친절한 웃음.

SNU

Rajeswaary



Iv4 Rishi

최첨단 눈썹 스타일. 간드러지는 목소리. 승현이의 100% 싱크로 울 성대모사. 남친의 구혼이 있었지만 1년 정도 미혼을 더 즐길 예정.

Iv5 Jeyasri

간단한 움직임에도 많은 웨이브를 하는 춤 고수 시크한 얼굴. 화나면 무서움. 꽃단장.



Ann

포니테일 스타일. 포근한 여전사. 독특한 말투. 언제나 먼저 밝게 웃어주는 고마운 선생님.



Komati

까불 까불 힙합 댄서. 작은 고추가 맵다. 추운 걸 몹시 싫어해 수영수업 때 발가락만 넣는다.



Iv6 vignes

우리에게 맛있는 말레이 음식을 쏘 20살 직장인 동생. 젓가락질을 하는 서툰 모습이 귀여움. 범진이에게 인사하지 않도록 반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난도!

# 2. 합석\_ can you join us?

10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_베다니 봉사자

나시코랭	로리봄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Masumi**

일본 출신 26살. 제이카. 체육 교육을 전공하고 2년 동안 베다니에서 체육 보조 교사로 활동중. 베다니에 와서 적응하고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좋은 언니. 우등. 링크점프.

저녁을 종종 함께하는, 차를 가진 좋은 친구들.



**Julia**

31살. 꼼꼼 정확 세련된 독일 물리치료사. 3달 동안 베다니에 봉사할 예정. 친절함 미소. 모든 일에 열심. 아침 운동 때 굉장한 집념으로 아이를 지도. 골반을 이용한 발랄한 댄스를 지향.



**Jana**

27살. 독일 재활치료사. 승현이가 열렬히 예쁘다 칭찬함. 배우처럼 생김. 과묵. 친절하고 느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Danial**

masha university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졸업반 실습생. 베다니에서 5주동안 실습. 풋살친구, 매너 최고, 잘 큼,

**Eva**



독일 봉사자. 장애인 관련 직업. 수다스럽고 긍정+코믹의 기운.



**Sevini**

masha university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졸업반 실습생. 미소가 아름다운 중국아빠와 인도엄마.

**Maggie**



18세 베다니 최연소 봉사자. 독일. 10월 독일 축제를 몹시 그리워 함. 오빠가 2년전 베다니에서 봉사를 하고 갔음. 보조개가 이쁨.



**Siti**

masha university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졸업반 실습생. 터프 드라이버. 담배 연기 속에 피어 오르는 아름다운 미소.

**Alexandra**



오스트리아 출신, 재활치료사. 범진이 말레이 댄스 파트너. 모든 적극적. 동양문화를 사랑함. 말레이바주를 사랑함. 잘 드심. 평소에는 평범하다 꾸미면 돌변. 자비로 베다니에 5개월 동안 봉사하러 왔음.

**Virpi**



핀란드의 물리치료사. 외모에 신경써. 파이팅 넘치는 춤.



**Kati**

핀란드의 간호사. 베다니에서 5주동안 봉사. 엘레강스 춤을 추거나 친구들을 잘못 둔 비운의 댄서. 분홍색을 사랑함.

**Isa**



핀란드의 물리치료사. 피시오에 주로 근무. 정말 핀란드 사람처럼 생김. 뛰어난 수화. 말레이시아에 4명의 허스밴드를 둠.



**samah**

lonely planet을 노즈링이라 들어서 미안해요. 케냐에서 핀란드로 이민. 자전거를 넘겨주고 간 은인.



**deco**

23세. 소말리아에서 12년전 핀란드로 이민. 이슬람. 까만 피부에 어울리는 vivid 스카프 패션. 인터넷 usb를 주고 간 은인. mahadsanid!!!!(소말리아어로 thank you!)

세계각국의 외국인 봉사자들.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흙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 David 광승현



베다니흙에 온지 한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 만난 베다니흙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어색한 관계에서 있는 말없고 서먹한 관계였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없이 주는 웃음들과 여러 다양한 손짓, 그리고 항상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작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느 순간 저도 이곳에 조금씩 동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어와 바하사를 못하는 저였지만 간단한 언어와 작은 동작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 주고 따라 주어서 하루 하루가 고마움과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슴 한 구석에 스며들며 항상 젖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자원활동을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abc밖에 모르는 저의 영어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서로의 개인적인 관계에 가지기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색해서 조금은 속상하고 또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1주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1~5기들의 라온아띠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라온아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R3~5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기억들이 단순히 “라온아띠 1, 라온아띠 2~5”

모두 라온아띠 자체로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해외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조금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유니폼과 간판의 힘인가?

물론 저도 그렇게 기억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컵. 쟁반 옮기기, 피싱게임. 공 옮기기 등 게임 내용을 스케치하고 준비해 나가며 아이들과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중간, 중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 않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되고, 또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항상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라온아띠 면접 때 면접관님이 물었었죠.

“현지에 가면 남는 여과 시간에 뭘 할거냐?”

“네” “상추를 키워서 단원들과 저녁식사 밥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룹흙 옆에 작은 텃밭이 있어 씨앗을 사서 새싹부터 키우기 시작 하였습니다.

오이, 옥수수, 이름 모를 중국 상추인지 시금치 인지 ...

비록 남는 베다니흙 생활 기간동안 텃밭에서 수확된 오이와 옥수수를 먹을 수 없겠지만

나중에 오이가 열리면 그룹흙 아이들이 따서 저녁 밥상에 올려 먹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수업고민하다  
지쳐 잠든  
DAVID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Jiya 김은지



커다란 입을 단 키 큰 나무가 즐비하고, 코를 찌르는 카레 향기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한 낮이면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이 작렬하는 이곳은 말레이시아다. '라운아피'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온 지도 어느 새 두 달이 지났다. 이제 처음의 설렘과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를 것이 더 많다. 두 달의 시간 중 절반을 보낸 이곳 'Rumah Bethany'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9월 27일, Bethany를 처음 만난 느낌은 '엉?!'이었다. 한국에서부터 우리의 주요 활동지란 말을 들었고, '신애' 기수들이 입 모아 '즐거운 곳'이라 했던지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직접 만난 Bethany는 상상보다 규모도 적었고, 학생 수도 적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을 대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어긋났다. 당연히 '엉?!'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놀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이었다. 난감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저기 켜 앉아 있어봤지만 께다 눈 보릿자루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 다른 서양 봉사자들 사이에서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기분은 곧 지루함으로 바뀌었다.

지루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잉여'라고 느껴졌다. 영어 안 되고, 낯도 많이 가리니 선생님과 봉사자들과도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자, 수 없이 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덩벼들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온다고 했을까? 이게 봉사활동인걸까? 아니면 봉사라는 건 뭘데? 친구들은 졸업이다 취업준비다 바쁘는데 나는 여기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심란해졌다.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애들과 부딪히지 않는 주방을 돕는 일에 꽤나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

그러다 2주일 여 만에 KL에서 열린 '스페셜 카니발'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이 곳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못 할 거라고 여겼던 일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 미소가 보였다. 이후에 'Thanks Giving'이니 'Deeparaya'니 하는 이런 저런 행사에서 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또 주어진 일정표에 따라 조금 더 당당하게(?) 각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도우면서 애들 한명 한명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자기 이름을 쓰고, 부모님 이름을 쓰고, 직접 청소를 하는 등 간단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이 보였다. 게임을 하면서 이겨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음악이 들리면 춤부터 추는 그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지루함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애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좀 더 즐거워졌다. 애들 한명 한명을 관찰하고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팀원들은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바빴지만, 나는 그저 팀원들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돕기만 했다. 수업 준비를 하느라 노력하는 것만큼 그 시간동안 애들을 알아가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게임과 귀차니즘, 그리고 내가 하는 수업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의문도 한 몫을 차지하긴 했지만... ㅋㅋㅋㅋㅋㅋ

여전히 이 곳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아직도 '뭘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슬프거나 난감하지만은 않다. 나를 보면 먼저 'Hi'라고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미는 Bethany 아이들 한명 한명의 미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곳에서의 일정도 거의 끝나간다.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은 친구들을 마음에 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그들도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왔다갔다하던 이상한 애 하나 있었지...'라고 말이다. ㅋㅋㅋ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 JOLLY 나희정



라운아띠로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곳은 “베다니”였다. 먼저 다녀온 말레이시아팀 라운아띠들은 모두들 “말레이시아 활동에서의 꽃은 베다니지!” 라고 입을 모았었다. 가서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은지라, 베다니로 오던 길의 나는 설렘 반 염려 반 하며 왔던 것 같다. 그래도 오기 전에는 참 **자신에 차** 있었다. “베다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겠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비슷한 장애인 학교에서 수업 도 몇 번 해봤고, 미리 준비한 수업들도 있으니 잘 할 수 있을거야!”

그러나 막상 할 일을 찾으라고 준 **첫 주**에 나는 다소...소심해지고 **무기력**해졌다.

매일 8시부터 3시까지 숨을 곳도 없는 베다니 안에서 방황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뽀뽀하고 지루했다. 그리고 다니면서 보니 아이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못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 온 것들 중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세계 각국에서 온 봉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봉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들은 대부분 장애와 관련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봉사일까. 25살 이 시점에,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내 팽겨 치고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냐. **공시령 공시령** 하는 생각들....



**2주**째가 되어 스케줄을 받고, 각 반마다 들어가서 수업을 돕고 아이들 하나 하나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항상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로 한 나의 10월 목표를 떠올리며 즐겁게 가끔은 즐거워 보이게 노력했다.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시작하고, 악수를 건네주는 아이들이 생겼다. 베다니의 사람 하나 하나가 느껴지면서 점점 이 곳이 좋아졌다. 베다니의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고 도우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베다니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과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베다니를 알아가면서, 이 곳에 정말 나를 나누고 싶어졌다.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을 쏟아내고 싶어졌다.

내가 머리 바깥에 아파하는 걸 보며 웃겨서 뒤로 넘어간 Jee Ing

아무 말 없이 내 손만 잡아 끌더니 어느 날은 불쑥 밥 먹었냐며 얼굴을 들이밀던 하이싱 😊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더니 몹시나 매너있게 문을 열어주는 Soo Tian Chang

노래만 부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클레이로 멋진 옥수수를 만들어 놀라움과 허무함을 선사해 zhe Xian

항상 반갑게 먼저 달려오지만 부끄러워 눈은 가리고 악수를 청하는 Soon Yi

팽이도 돌리고 나랑도 돌고 혼자도 돌고 뭐든 다 돌리는 spin천재 vicknes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베다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봤다. 2년 전 왔던 독일 봉사자가 아이들이 느끼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돌과 나무,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기도 하고, 베다니의 유지를 위해 베다니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파는 용품들을 보기도 하면서, 베다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업만이 아니라, 이 곳이 유지되고 좋아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한계 짓지 않고 상상하면 상상 할수록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can을 의미하는 말레이어 "boleh" 를 넣어 " **BETHANY OLLE BOLEH**"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참 떠들어댔다. 베다니를 위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이 곳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다. 3d 산책로? 개인 텃밭주기? 아이들의 직업교육의 일환인 mm카페를 더 활성화 시키기? 장난감 만들기? 놀이터 활성화? 도서관? 동물체험장? 짹!!! 베다니에 필요한 게 뭘까를 함께 고민하며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참 멀리도 갔지만, 6주라는 봉사기간은 적응하고 일을 벌이기에 참 짧게만 느껴진다. 이런 저런 고민들 끝에 우리는 작은 일을 착수하기로 했고 주어진 시간에 베다니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 대단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작은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베다니가 아닌가!! 다크서클 드리우며 남은 2주 동안 꼭 끝내리라.YEah!!!!

그러나 무엇을 하던, 나에게 있어서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며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관련된 전공도 이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은 결국 참신함을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craft수업에 주로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어떤 수업을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 수업을 해보면서 어떤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게 되고, 조금씩 방법을 알아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어쩌면 기본 지식도 부족하고. 장애 아이는커녕, 외국 아이는커녕, 한국 아이들과도 **수업 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저런 고민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올걸  $\pi\pi$  힘을 쓰라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데, 교육봉사는 너무나 고급봉사다  $\pi$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하고 싶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가져간 신기한 것들을 이용한 수업 밖에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는데 말이다. 나의 창의력은 참으로 바닥이더라.... 그래도. 직접 찾아와 수업 아이디어를 문의하시는 선생님, 다음 주에는 다른 반에서 했던 수업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청해주시는 선생님들 점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니 남은 수업은 더 고민해 보면서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남은 2주도 꾸준히!!! 아자아자!!!!

**베다니에서 5주째에. 이렇게 정이 들어가고 있다.** 처음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그저 좋고 예쁘고 행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고민과 질문들도 함께 들게 된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 축제에 올린 아이들의 댄스공연을 보다 문득 가슴이 찡해졌다. 이 베다니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베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 걸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과 시도들로 베다니를 마저 나누고 싶다. :)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 ALICE 김숙정



점차 요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5분정도 늦을 때도 가끔 있지만 7시 30분에 모여 베다니 홈으로 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지만 집집마다 사는 정도에 따라 대문 모양도 다르고 종교의 모습도 가지각색이라 매일 오가며 구경하는 재미가 한달이 지나서도 여전하다. 특히나 몇 시부터 나와서 놀고 있는지 모를 동네 꼬맹이들이 인사라도 해주면 내가 걸어 다닌 이 길이 특히나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8시가 조금 안 되어 베다니 홈에 도착하면 팀원들 저마다 시작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나는 주로 홀 앞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아침 조회에 참석한다. 조회에는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일부 선생님 베다니 스텝들이 모여 앉아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는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닌 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조회 끝에는 새로운 봉사자가 오면 소개하기도 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각자가 베다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항상 어떤 행사나 일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담당자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조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베다니 정문 쪽 산책로를 나가 함께 20분 정도 산책한다. 휠체어를 탄 학생들도 함께 산책하고 활발한 아이들은 창난을 치며 걸기도 한다. 처지거나 견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봉사자들, 아니면 다른 학생이든 누군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책이 끝나면 9시까지 홀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데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준비한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아침운동을 하는데 그 전날에 동작을 짜고 미리 해보느라 정신이 없다. 무대에서 보면 곧잘 따라 하는 아이도 있고 음악이 신나 박수만 치고 있는 아이도 있다. 운동이 끝나면 수고했다며 다같이 박수를 쳐주는데 비단 무대에서 동작을 보여준 봉사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박수는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박수처럼 느껴질 때 마다 내가 베다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든다.

9시부터는 베다니에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팀원들 각자 클래스에 들어가 수업보조나 수업진행을 직접 한다. 이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은 시간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즐거운 고통 속에 있다. 나는 주로 수업보조로 일하고 협찬 받아온 과학 키트를 가지고 몇 번 수업을 진행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별거 아니지만 재밌게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한 주는 거의 빠지지 않게 주방일 만을 하 주도 있었다. 주방일은 베다니에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의 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주방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 밑에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데 필요한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야채를 썰고 음식 재료를 다듬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그런데 나에게 단순한 주방일이 아니었다. 애증의 주방일이라고 해야 하나, 주방 일에 관해서 조금 생각이 복잡하다. 주방일은 베다니 내에서는 참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상명하달 식이다. 아직도 적응중이지만 처음 주방 일을 할 때는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큰 안정감을 느꼈다. 주방 일을 끝내면 하루가 반나절이나 지나



# 3. 위하여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있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해왔던 봉사활동 들이랑 비슷해서 혹은 익숙해서 좋았다. 고민하지 않고 몸으로 뛰어드는 느낌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구조에서 오는 강압적인 관계와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이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수동적이라고 느끼면서도 우리 팀의 자원 활동의 가장 우선순위는 현지에서의 필요라는 생각을 하니 의미상 문제는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조금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이 익숙해지고 아주머니들과의 소통도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서 나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이러한 생각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모두가 먹는 음식이니 내가 일해도 충분히 보람이 있을 거라며 다독여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오전 활동을 끝내고 나면 오후엔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은 매일 두 명의 아이가 배식 보조 활동을 한다.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입은 모습들이 체법 책임감 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오후 활동 역시 클래스와 수영 등으로 보내고 3시쯤이 되면 하루 베다니 활동이 끝난다. 활동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집에 온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디파리아 축제를 위한 춤 연습이나 다른 봉사자들과 만남이나 나이트 마켓에 가는 것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와 가장 많이 어울린 외국인 봉사자는 일본에서 온 마쓰미인데 그녀는 라온아띠 3기부터 함께 지내왔고 올 12월에 베다니 활동이 끝나는 봉사자이다. 마쓰미는 모든 라온아띠들의 성격과 특색이 달랐고 활동들도 조금씩 달랐다고 얘기해 주면서 지난 기수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눈시울이 축축해 지기도 하였다.

집에 돌아오면 그룹홈 옆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기도 하고 일일평가를 진행했다. 그룹홈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그룹홈의 문을 두들겨 보려 한다.

이렇게 까지가 일상적인 베다니에서의 하루다. 힌두교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디파발리 때문에 거의 일주일정도의 휴가와 베다니에서의 축제 덕분에 색다른 경험을 했던 시간들도 많이 가졌다. 베다니 홈이 주는 고민들은 아직까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답은 아직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클래스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부비며 지내면 될 것으로 믿으며 남은 베다니 활동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 3. 위하여

스윗 p o r k 20.0	나 시 트 막 6.00	원 탄 미 7.80
--------------------------------	--------------------------	---------------------

## 1) 만남을 위하여\_ 베다니 홈에 등지 뜨는 우리의 이야기



### JIN 박범진

한국의 빌딩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답답한 하늘과는 달리 드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따라 KL에서부터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이곳, **Bethany**의 첫인상은 그동안 듣고 상상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고 낯설게 느껴졌었던 것 같다.

하지만 5주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몹시 우울하다.

무엇이 좋은지 누가 묻는다 해도 딱 꼬집어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단지 이곳의 비오는 풍경이... 발끝에 느껴지는 촉촉이 젖은 잔디의 촉감이, 뜨겁게 내리쬐는 말레이시아의 햇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환하게 웃는 밝은 미소가 어느새 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은 듯하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배우고 생각했던 자원 활동의 의미나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한쪽에 밀어놓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웃으며 지내는 시간들을 영원히 느끼고 싶은 마음뿐이다.

전 기수들이 말레이시아 활동의 꽃이라며 입 모아 말하고 그리워하던 Bethany Home.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간절하고 애뜻하다.

**가기 싫어~~~~!!!!**



아마 내가 베다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좋아서 인듯하다.

# 3. 위하여

## 2)우정을 위하여\_ 베다니 홈과 함께한 행사

### (1) Special carnival

나시코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프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희정: 사실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고 KL에서 열리는 recreation 프로그램이라길래 따라갔는데, special children의 스포츠 대회 같은 것이었다. 9월에 봉사했던 위즈마 하라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참가해서 또 만나는 반가움!!! 그 때까지도 아이들과 가깝지 못했었는데 가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응원하고 달리다 부쩍 친해진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함께 웃고 놀며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모여 이런 경험을 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을 고안하고 그 게임에 적합한 선수를 보내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은지: 베다니홈에 와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한 날이었다. 작은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 이기고 난 다음 즐거워하는 모습... 그 미소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인 하루였지만, 베다니 친구들이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았고, 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위즈마하라판 아이들도 만나서 즐거웠던 하루였다.

승현: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장애아동 학생들만의 올림픽 행사가 있다는 것으로도 새로웠고 아이들의 운동종목과 실행단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숙정 :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장애아동 학교들이 모여 함께 체육대회를 한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대기석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느라 게임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이날을 통해 Lv.6의 xue yun 이라는 아이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더 친해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뿌듯하다. KL에서 활동했던 위즈마 하라판 아이들과 선생님도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뻐다.

범진: 그동안 베다니 안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이 버스에서 KL로 가는 동안 굉장히 즐거워하고 설레어하던 모습에 새벽 일찍 일어나 피곤해 있던 나에게 행복한 기분과 참여하길 잘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게 했었다. 또 special school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아이들이 즐겁고 열심히 경기를 하여 2등이라는 결과를 내었고, 처음 wisma harapan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정말 즐거웠던 기억만이 남은 하루였다.



# 3. 위하여

## 2)우정을 위하여\_ 베다니 홈과 함께한 행사

### (2) Thanks giving

나시코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트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숙정:** 베다니 홈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줄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의 gee공원에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베다니 홈이 앞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나도 함께 즐거운 날이었다.

**은지:** 행사가 진행되는 베다니 홈 내의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 날이 뭐하는 날인지 몰랐다.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까지 멋지게 차려입고서 우리를 맞이 할 때는 '아차' 싶기도 했다. 우리의 차림은 너무나 가벼웠으니까... ㅋ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날이 베다니 홈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Gee'를 찾다. 여전히 춤을 추는 동안 조용했지만, 끝나고는 꽤나 큰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생일 초를 불고 나서 시작된 저녁만찬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금 베다니 홈의 생일을 축하한다.



**범진:** 많은 사람들이 Bethany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다. 이 즐겁고 의미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의 멋있게 차려입은 모습과 사리를 입은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의 한복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맛있는 만찬까지 함께했던 기분 좋은 날이다.



**희정:** 베다니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데는 기억이 안나지만, 40여년 이 된 꽤 중년의 기관이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베다니가 처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지만, 아직 풀지 못했다. 기회가 되면 알아봐야지. 선생님, 관련한 사람들, 부모님들, 학생들, 봉사자들 모두가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베다니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길을 축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gee를 추려니 너무나 부끄러워 좀 많이 틀리긴 했지만 노력한 것으로 만족한다. 또 아이들이 그 동안 준비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독하는 데, 뭔가 모르게 코 끝이 찡했다. 계속해서 베다니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나도 한 명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말레 이시아에서의 파티에 꼭 등장하는 뷔페는 너무나. 맛있다.



**승현:** KL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때 이처럼 떨지 않았는데 이날 무대 앞에서 저는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웃는 얼굴로 감추고 한 동작 한 동작 춤을 추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아서 춤을 가르쳐 준 숙정에게 미안한 감도 있었던 하루,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 3. 위하여

## 2)우정을 위하여\_ 베다니 홈과 함께한 행사

### (3) deepa-raya

나시코랭	로티복	바쿠테	스윗 pork	나시트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숙정** : 베다니의 어울림을 잘 보여준 축제였다. 행사 이름도 말레이 축제인 하리라야와 인도계 축제인 디파발리의 합성어로 사리를 입은 사람과 바주 꾸롱을 입은 사람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매일 춤 연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공연하는 것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어 보여서 나도 저절로 즐거워졌다. 말레이 춤을 연습해서 직접 무대에 오른 것, 판자비를 입어 본 것, 특히나 앞으로 다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말레이 남자 바주를 입은 경험은 흥미로웠다. 그 시골벽적이고 유쾌한 행사의 일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하루로 기억이 남을 것 같다.



**승현** : 시골벽적이고 웃음이 넘쳐나는 하루였습니다. 해외 자원활동가 친구들은 저마다 화려한 인도 사리와 말레이 전통의상으로 입고 무대 위에서 자신들이 연습했던 춤들을 뽐내었고, 베다니 작은 친구들도 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옷을 가리키며 자랑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무대는 너무나 귀엽고,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범진** : 처음으로 느껴보는 말레이시아의 인도 축제! 화려한 사리들과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들을 보는 재미와 이곳에 와서 구입한 인도 전통의상과, 말레이시아 전통의상도 입어보고 그동안 연습했던 말레이시아 춤도 추어보았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도 관람하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도 먹었던 날이다.



# 3. 위하여

## 2)우정을 위하여\_ 베다니 홈과 함께한 행사

### (3) deepa-roya

나시코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은지:**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디파라야'라는 행사는 베다니만의 즐거운 축제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인도인들의 전통 의상인 '사리'도 입어봤고, 그 옷을 입고 타국의 봉사자들과 인도 춤도 쳤다. 학생들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축제를 즐겼고, 선생님들도 공연을 준비해서 함께 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처음으로 바나나 잎을 그릇삼아 손으로 밥을 먹은 것이다. 손으로 밥먹는 거... 어렵다. 카레에 젖은 밥을 어찌들 그리 잘 뭉쳐서 입에 넣는 걸까... 젓가락이 그리운 점심이었다. 그래도 모두와 함께 웃었던 즐거운 하루~!!



**희정:** 거의 2-3주 동안 연습한 춤을 추는 결전의 날이었다. 춤 연습을 하면서 파티준비를 함께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 날에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학생, 선생님, 봉사자들이 준비한 무대들 모두 즐겁고 흥겨웠다. 이 날 처음으로 새로 산 사리를 입었는데, 사리를 입는 것도 힘들지만 입고 있는 것도 참 덥더라는 ^^ 예뻐다! 이 파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예쁘다고 말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가까워졌다. 말레이시아의 이런 다양한 파티들이 서로를 따듯하게 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 3. 위하여

## 3) 내일을 위하여

### (1) 말레이시아 END POVERTY 캠페인

나시코랭	로티봄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라운아띠 6기 말레이시아 팀이 2011년 10월 19일, 말레이시아의 "Bethany Home"에서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의 기본적인 방향은 UN에서 발표한 END POVERTY 8 가지 목표 중 "2. 보편적 초등 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육의 편차는 결국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캠페인에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어른들은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장애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장애 아동들은 역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 그러나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선진국들에서조차 다른 아동의 교육보다 낮은 실정이며, 말레이시아 또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라운아띠는 캠페인의 방향을 모든 장애 아동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두고, "EDUCATION OVERCOMES THE POVERTY" 라는 부제로 저러기 캠페인을 지해했다.



준비된 캠페인의 형태는 'Poverty'를 상징하는 박을 터트리는 "박 터트리기 놀이"이다. 이는 우리네 운동회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박을 터트리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빈곤을 깨뜨리자는 의미로 모두 함께 공을 던져 박을 터트리는 형태로 준비되었다. 베다니 홈의 아이들도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놀이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 것이 라운아띠의 판단이었다. 공동놀이의 원활한 진행과 캠페인의 목적 및 의미를 알리기 위해 사전에 약 주일 동안 봉사자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공동행동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함께 포스터 홍보가 이루어졌다. 10월 19일 아침 9시 준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먼저 선생님과 학생들, 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베다니 홈 중앙 잔디밭으로 모여 END POVERTY의 상징인 White string을 서로의 손목에 묶어 주며 의미를 되새겼다.



END POVERTY CAMPAIGN by korean volunteers

**Please give the chance**  
to all special children for education.

All the Bethany home's students & teachers & staffs & volunteers!!  
Let's play together with balls at the playground!!!

-Date : 19th(wed), Oct. 2011  
-Time : 9:00am(after morning exercise) - 9:40 am  
-Place : Playground in front of the hall

Please join in our END POVERTY campaign!  
As a campaign,  
let's play "breaking the basket" game and tied up the white strings as a symbol of END poverty!!!  
we believe all together playing is really meaningful.

UN member countries are doing the project "END poverty". they are made 1-8 goals till 2015 like followin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8. IMPROVE MATERNAL & CHILD HEALTH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 REDUCE CHILD MORTALITY	9.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lso, they made every 17th of October as an "End poverty campaign" day to promote for the people and this is a part of that campaign.

we concentrate on goal no.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and believe all the staffs and volunteers in Bethany have SAME thinking about this, and especially, the special children's chance for education.

Let's gather our mind and heart to hope for all the special children's education.  
Let's throw the balls and play together with children!!! we really need your help.



# 3. 위하여

## 3) 내일을 위하여

### (1) 말레이시아 END POVERTY 캠페인

나 시 코 랭	로 티 롬	바 쿠 테	스 켈 포 르 크	나 시 르 막	원 란 미
5.50	1.20	30.5	20.0	6.00	7.80

교육을 하는 사람들과 교육 받는 학생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박을 향해 공을 던졌고, 박이 터지자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깨진 박에서는 END POVERTY의 공식 문구인 "BETTER AID FOR THE WORLD WHAT WE WANT"와 말레이시아어로 캠페인 부재와 관련된 "PENDIDIKAN MENGATASI KEMISKINAN (EDUCATION OVERCOMES THE POVERTY)"라는 문구를 쓴 현수막과 함께 우리의 염원을 담은 100마리 학이 떨어져 캠페인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했다.

박 터뜨리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MDGs 8가지 실천사항이 담긴 놀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MDGS 8가지 항목을 그린 '퍼즐'과 '색칠 공부 및 그림'을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놀이수업을 가졌다. 이는 퍼즐 등의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놀이 기구들을 이용해 캠페인 종료 후에도 빈곤 퇴치를 위한 내용들을 선생님들 및 다른 봉사자들에게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는 200여명의 베다니홈 선생님, 스태프 그리고 라온아띠를 비롯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말레이시아 등 각국 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베다니 홈 견학 온 약 80여명의 SMJK SAN MIN 학교 학생들도 함께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3. 위하여

## 3)내일을 위하여

### (2) Deepavali

나 시 코 랭	로 티 롬	바 쿠 테	스 췌 pork	나 시 르 막	원 란 미
5.50	1.20	30.5	20.0	6.00	7.80

Deepavali는 빛의 신이 어둠의 신에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빛의 행렬'이라는 뜻으로 힌두교도들에게는 새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 집안과 거리를 밝은 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신년을 맞이한다. 올해는 10월 26일 축제가 시작되었다.

라온아띠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도 시계가 26일을 알리자마자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지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오토바이들이 흥에 겨워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고, 집집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신나는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이 밝자 한적한 마을에 들뜬 기운이 완연했다. 한적한 시골마을인 이곳은 한국의 설날처럼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의 방문으로 붐볐고, 대문을 활짝 열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Open House' 파티를 즐기느라 분주했다.

라온아띠도 축제에 함께 했다. 26일 수요일, 라온아띠는 베다니 홈 선생님과 친분 있는 인도음식점 주인의 오픈하우스 파티에 초대 받았다. 초대를 받은 후,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기고, 파티에서의 예절을 지키기 위하여, 라온아띠는 선물과 의상에 신경을 썼다. 나희정(23)씨와 박범진(22)씨는 인도 전통 의상을, 광승현(24)씨와 김숙정(21)씨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었다. 선물은 달콤한 쿠키와 한국에서 준비해 간 '엿'과 '홍삼 젤리' 로 준비했다.

26일 첫 번째 방문지는 'Shiba'선생님 댁이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베다니 홈 차를 타고 이동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손님들로 시끌벅적했다. 집에서 직접 만든 Deepavali때나 맛볼 수 있는 전통 과자들과, 'Roti-Canai'와 치킨 카레는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맛있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다음 장소인 'Selvarani'선생님 댁으로 이동했다.

'Selvarani'선생님 댁에 들어서자 강아지가 라온아띠를 반겼다. 선생님은 음식을 내어주며 먹으라고 권했지만, 막 아침 식사를 마친 뒤라 참석자 모두가 힘겹게 밥을 넘겼다는 후문이다. 조용하지만 친절한 남편 분과 잘 꾸며진 집이 인상적이었다. 참석자들이 '잘 먹었다'는 인사를 건네자, 선생님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라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짐작컨대 한국의 명절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반복되어 여자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축제는 아니리라 생각된다.

한편, 저녁에는 베다니 홈에서 함께 일하는 일본인 봉사자 'Masumi'와 함께 인도음식점을 운영하는 'Tiro' 아주머니 댁의 오픈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다. 중산층으로 추정되는 그 집은 집의 내외부가 아주 잘 꾸며져 있었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식당 경영자의 파티답게 음식들도 맛과 향이 뛰어나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즐거운 식사였다.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음악, 즐거운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  
시  
고  
랭

5.50

로  
티  
폼

1.20

바  
쿠  
데

30.5

스  
윗  
p  
o  
r  
k

20.0

나  
시  
트  
막

6.00

원  
란  
미

7.80

## 10월 목표 돌아보기 베다니 홈에 등지 틀기

우리들 각자가 '등지틀기' 대한 생각과 목표는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나온 공통된 생각은 우리들의 '등지틀기'는 거부감 없이 마음 편하게 베다니 홈의 한구성원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베다니홈에서 생활 하면서 처음에 느꼈었던 부담감이나 긴장감으로 얼었던 마음은 이제 베다니홈 아이들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눈 녹듯 녹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 팀의 10월 목표인 '등지틀기'는 아주 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은지** 베다니 홈 아이들의 이율 5명 이상 외우는 것.

내 사랑 옆집총각 Soon lee, 너무너무 귀여운 L1의 아이들 Phei xin, Alton, 감자머리 Ji jiet, Puspavali, 산책할 때마다 나를 달리게 만드는 Pui와 너무 잘생긴 Jin pu, 이제 조금씩 웃어주는 Wai chen 언니 그리고... 불행히도 알파벳이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만은 또렷한 사랑스런 아이들, 이 정도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아~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

**승현** 베다니의 아이들에게 나만의 인사법을 전파하는 것.

내 인사법이 어렵나 보다. 그난 손잡고 인사 하는걸로 해야지...

**범진** 봉사자던 선생님이던 아이들이던 베다니홈의 사람들을 닮는 대로 사귀겠다

베다니홈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해 주어서 항상 감사하고 즐겁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그들에게 더욱 잘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희정**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하겠다.

처음에 왔을 때 만큼 웃지 못하고 점점 미소가 사라져 간 감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만큼은 진심으로 웃었다. 웃을 수 밖에 없다!! 가끔 졸리고 지쳐 어두운 모습 보여 "오늘 피곤해 보인다" 는 말을 들은 것에 반성하며, 즐겁자 ☺

**숙정** 1명의 선생님과 3분 이상의 진중한 대화를 할 친분쌓기  
2명의 아이들이 나를 보고 뛰어 올 수 있기  
1명의 봉사자와 3분 이상 진중한 대화를 할 친분 쌓기.  
베다니 홈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우선 선생님들과는 수업 이상의 대화를 해 보지 못한 것 같다. 마쓰미와 다같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 괜찮은건가..? 아이들은 비록 날 보고 뛰어 오진 않지만 내가했던 장난을 기억하며 나보고 오라며 손짓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베다니 올레 볼레는 계획단계에서 벗어나고.. 처음 가졌던 의욕만큼 베다니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 같다. 반성.. 의 시간.. 흑

나  
시  
고  
랭

5.50

로  
티  
폼

1.20

바  
쿠  
데

30.5

스  
윗  
p  
o  
r  
k

20.0

나  
시  
트  
막

6.00

원  
탄  
미

7.80

## 11월 우리의 목표 맛있는 이야기 만들기

**은지** 짐을 쌀 때, 후회는 담아가지 않도록 더 많이 즐기.

이제 막 정이 든 베다니 흠을 곧 떠나야 한다. 꼭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일단 떠나는 가방을 쌀 때 '에이...'라는 후회가 들지 않게 아이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부대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우리의 일정에서도 짐을 쌀 때, '잘 놀았다'라는 기분이 들게 더 많이 많이 즐기고 즐겨야지~!!

**승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해외봉사자들과 많은 대화 하기 .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

**범진** 헤어질 때 눈물 지으며 헤어질 수 있게 더욱 친해지자!

벌써부터 눈물 날라 그러네 T T

**희정** 1. 베다니\_수업에 대해 선생님과 미리 의견 나누고 코멘트 받기

아이들 하나 하나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므로, 수업을 미리 준비해서 꼭 사전 코멘트를 받아야 겠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못함과 저질체력으로 아직까지 잘 되지 못함을 반성하며, 남은 11월의 2주 동안은 꼭 지키겠다.

2. 웬만하면 YES YES!! BOLEH!! BOLEH!!

개인적 잣대로 no ! 안돼! 다음에...를 외치면 영역을 작게 규정지어 버리게 되는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이 언제나 외치는 yes ! Boleh (can)! 을 외쳐 보자.

**숙정** 즐겁게, 열심히 지내기

시기상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한 요즘~~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관계에 있어 조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본질적인 것을 놓친 기분이다.  
즐겁게 지내서 고민, 걱정 있냐는 질문을 안 받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11월에 돌아온다.

